

EPIC 이론을 적용한 전인적 여름 캠프
: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조나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Naeun Ch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HOLISTIC SUMMER CAMP APPLYING THE EPIC THEORY: A CASE OF METROPOLITAN KORYO UNITED METHODIST CHURCH

Naeun Cho

Metropolitan Koryo United Methodist Church, NY, USA

This thesis explores and conceptually establishes the necessity of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grounded in Leonard Sweet's EPIC theory. The EPIC framework emphasizes four critical aspects: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and Connection. Drawing from extensive ministry experience as an educational pastor in both Korean and American church contexts, the researcher proposes an EPIC-based summer camp model as a practical and spiritually enriching alternative for Christian education beyond traditional Sunday school formats. Central to this thesis is the conviction that Christian education must move beyond mere dissemination of biblical knowledge, instead facilitating a transformative encounter with faith in everyday life. Within this framework, a holistic Christian is defined as a disciple who reflects Christ through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maturity.

Employing a case study methodolog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s that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has on students'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formation. Ultimately, the researcher provides practical examples

and detailed guidelines, equipping church leaders and educators to design and implement summer camp programs effectively tailored to their specific ministry contexts and community needs.

국문초록

조 나 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뉴욕, 미국

이 논문은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을 근거로,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당위성을 탐구하고,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이미지(Image)로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교교육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정립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교육목회자로 사역하며 주일학교 예배 이외에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EPIC 이론을 적용한 여름캠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름캠프를 통해 기독교교육이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넘어 삶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전인적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인적 기독교인이란 ‘지성, 감성, 영성의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의미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영적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사례와 가이드를 통해 교회 지도자와 교육자들이 각 공동체에 맞는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연구와 필요성과 목적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3
II. 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이해	5
A. 전인교육의 교육적 요청	5
B.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7
C.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와 전인적 기독교 교육의 연결성	10
III. EPIC 이론의 이해 및 EPIC 기독교교육론	15
A.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17
B. 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19
C. 이미지(Image)로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21
D.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교교육	24
IV. EPIC 이론을 적용한 전인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27
A. 커뮤니티 분석 및 이해	27
B.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	30
C. 프로그램 준비 및 행정 절차	33
D.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0
V. 결론 분석	43
A.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의 평가	43

B. 학생들의 평가	46
C. 결론 및 미래를 위한 제언	51
참고 문헌	53
부 록	56

감사의 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웃 곁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한 줄의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마주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제가 경험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목회학 박사 논문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저에게 여성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심어주시며 박사 과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교수님의 탁월한 통찰력과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 덕분에 논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학과 이야기, 상징, 그리고 은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세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 담임목사님과 임지윤 사모님이 계셨기에 이 논문의 주제를 만나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는 아니지만 맨해튼이 미국에서의 고향이라고 여길 정도로, 가족과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수련목회자 기간, 목사 안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미국에서의 유학과 사역을 지지해주신 불꽃교회 공성훈 담임목사님, 텍사스로 이주하여 이 논문을 끝맺을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배연택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신 나의 영적 멘토 부모님과 오빠 조준영,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더욱이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아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시부모님과 형님 진난주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며 인생의 사계절을 여러 번 겪을 동안 곁에서 사랑과 격려로 동행해 준 남편 진익창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과 함께 나란히, 이 목회 여정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있고, 언제나 이웃 곁에서 울고 웃으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조 나 은

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필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독교교육 사역자로 섬기며 수많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참여하고 기획했으며 진행해왔다. 또한 한국의 개체 교회 사역과 더불어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 및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종교 교사로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과 실천적 연결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특히 학생들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복음을 체화하고 전인격적인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빈도와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함을 고찰해왔다.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또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려할 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명기 6: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처럼 신앙교육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일학교 예배와 공과 시간만으로는 이러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학업과 다양한 외부 활동, 그리고 입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시간과 접근 방식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필자는 2022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한인 교회 교육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를 경험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여름성경학교와는 다른 이 여름캠프가 신앙교육을 위한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확장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교회 또는 사설 교육기관의 여름캠프에 참여하여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학습한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는 단순히 찬양과 예배,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인적 기독교교육 모델을 의미한다. 곧 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신앙 교육과 더불어 스포츠, 예술, 창의적 활동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신앙적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근거로,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당위성을 탐구하고,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이미지(Image)로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교교육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정립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교회 주일학교의 예배 이외에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가이드를 통해 미국 또는 한국의 교육사역자들이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전인적 기독교교육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필자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한 여름캠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근간이 되는 이론은 레너드 스위트(Lenord Sweet)의 EPIC 이론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단순히 신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학생들을 위한 전인적 성장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EPIC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원서와 번역본 및 국내 도서를 참조하였다. 또한 주제와 연관되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학위논문과 인터넷 기사 및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자가 현장 총괄 책임자(Field Director)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Program Director)로서 직접 경험한 여름캠프를 분석하여 검토한 것임을 밝힌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이해 및 여름캠프와의 연결성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의 현실을 마주하고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신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EPIC 이론의 핵심을 알아보고, 이를 전인적 기독교교육 및 여름캠프에 적용해본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EPIC 이론을 적용한 전인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결론적으로는 본 연구의 내용을 평가하며 도출된 결론과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국 또는 한국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II 장

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이해

A. 전인교육의 교육적 요청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2%가 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간 대화 시간이 부족해진다”와 “자녀가 사교육에 의존하여 스스로 학습하지 못할까 염려된다”는 점이 꼽혔다. 나아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또래에 비해 뒤쳐질 것 같아 불안하다”는 반응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답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¹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양가적인 감정을 잘 드러낸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교육이 자녀의 자율적 학습 역량과 가족 간 소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성공을 의미하는 요소’로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선택한 응답은 “자녀가 인격을 갖춘

¹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23), 7.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교육의 효율성과 더불어, 자녀의 인격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의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인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도덕적 발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전인교육은 지식이나 기능 따위의 교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²으로 이해된다. 홍용선(1979)은 전인교육을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인 영역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조화된 인간성을 길러,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는 자아실현의 교육”³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전인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세대에 걸쳐 만능해결책과 같은 단어로 인식될 정도로 이상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인간교육, 도덕교육, 인성교육, 교양교육 등 전인교육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는 교육의 개념들이 존재하나 전인교육의 접근방식은 인간의 다양한 구성요소인 지·정·의, 지·덕·체, 지·영·체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자 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전인교육 사상을 발달시킨 학자들은 누구인가? 서양에서는 철학자 플라톤(Platon)을 시작으로, 로크(Locke, J.), 페스탈로치(Pestalozzi, J. H.), 스펜서(Spencer, H.), 수호믈린스키(Sukhomlinsky, V.) 등이 전인교육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동양에서는 옌푸(嚴復), 오바라 구니요시(小原 國芳), 정범모 등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정립하였다. 1980년대 이후 발표되어 확장된

²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top> [2025. 3. 3. 최종접속]

³ 윤길근, 김진규, 『전인교육의 담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21), 25.

이론인 “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Daniel Goleman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Robert Coles의 도덕지능(moral intelligence) 이론은 인간의 지능과 앎의 방법에 대해 포괄적 이해를 제공”⁴했다. 이를 통해 오래 전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인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다양한 전인교육 사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 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리하면, 전인교육이란 인간에게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과, 온전한 인간 즉 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음에 바탕을 둔 교육이고, 인간의 모든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고, 인간에게 잠재된 가능성 모두를 이끌어 내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전인적으로 성장시켜 모든 것을 갖춘 온전하고 균형 있는 인간, 즉 전인을 길러내려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Rudge, 2010, p. 11; 김양분의, 2010, p. 6; 오영재, 2007).⁵

B.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기독교교육의 핵심은 전인적인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데에 있다. 전인적 기독교인이란 ‘지성, 감성, 영성의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다.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듯이,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복합적인

⁴ 김영래, “다중적 앎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43 (2001), 437.

⁵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49.

존재로서 대상을 다층적으로 경험한다.⁶

앞서 설명한 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전인교육이 인간을 지적, 정서적, 신체적, 도덕적 성장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전인적 기독교교육은 성경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요청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전인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과정, 방식, 그리고 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육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명(2014)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의 특징들을 열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예수님은 여자와 아이, 병자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교육자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인격존중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둘째, 피교육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거 또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바라보는 가능성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셋째, 질문법 또는 비유법을 통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여 전인적인

⁶ 김영래, “다층적 삶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43 (2001), 433.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넷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변화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다섯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 이처럼 피교육자로 하여금 배움이 곧 삶 속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지행합일의 교육을 추구하셨다.

여섯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전인교육에서 추구하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지·정·의를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공동체 교육을 실천하셨다.

여덟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5) 이처럼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섬김과 용서, 사랑 등 기독교적 핵심 가치를 스스로 행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본보기 교육을 실천하셨다.

아홉째, 진리를 교육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과정을 선택하고 피교육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비형식적 교육을 추구하셨다.

열째, 요한복음이 증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건은

사랑의 교육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론을 통해 우리는 전인적 기독교교육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전인을 길러내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음(Christ-likeness)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할 영역들과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⁷ 그 영역은 곧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너는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눅 10:27) 이처럼 인간의 모든 요소를 통해 전인적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완성이 될 것이다.

C.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와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연결성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은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깊어지도록 도왔지만, 현실 세계와의 균형을 맞추고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는 성경 지식의 전달에만 치우친 결과로, 신앙이 실제 삶에 적용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을 위해서는, 지식과 삶, 신앙과 실천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⁷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80.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관과 신앙교육 참여도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학업 성취와 사교육 및 입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교회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과 같이 짧은 일정으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3-4주에 걸쳐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를 우선시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교육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여름방학이 길고, 공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 환경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의 대학들이 학생의 시험 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초점을 두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스포츠, 음악, 자기계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캠프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여름에 진행하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VBS(Vacation Bible School, 이하 여름성경학교)로, 한국의 여름성경학교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배와 찬양, 성경 공부 및 공과 활동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욱 깊은 성경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거나, Group과 같은 기독교교육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 교회에서 여름에 진행하는 두 번째 사역은 Summer Camp(이하 여름캠프)로, 짧게는 2주, 길게는 7주 동안 진행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전인교육 프로그램이다. 간단하게 말해 ‘작은 학교’인 것이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여름방학은 보통 10주에서 12주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름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약 절반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적이고 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교사 및 또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는 교육의 빈도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전인적 기독교교육 커리큘럼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곧 미국의 여름캠프는 단순한 신앙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현장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여름캠프를 여름성경학교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여름성경학교는 교회의 사역자와 교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여름캠프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전문 교육자를 고용하여 보다 폭넓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스포츠, 과학, 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수업을 진행하며 전인적 기독교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여름캠프는 중·고등학생 발룬티어(Volunteer, 이하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모든 교사를 재정적으로 채우기 어려울 때 봉사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교사와 스태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은 필수적인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며 여름캠프에서의 활동 또한 봉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캠프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서로에게 이롭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신앙적, 정서적인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더불어 여름캠프를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교육가로서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 받는다. 캠프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소그룹을 이끌며, 교사와 스태프들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책임감과 교육적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회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확인하고, 그들을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캠프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신앙적, 교육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

여름캠프와 여름성경학교의 세 번째 차이점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의 다양성에 있다. 여름캠프는 교회나 교회 앞 주차장과 같은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캠프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배움과 체험이 일어나는 공간 어디에서나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성경학교가 신앙교육 이외에 특별 활동으로 물놀이, 트램펄린, 바운스 하우스 등 여름 야외 활동을 진행하여 즐거움을 준다면, 여름캠프는 다양한 야외 체험과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은성은 오늘날의 교회가 제한된 교육과 좁은 지성주의로 인해 성경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⁸ 성도가 성경 지식에는 능숙하지만 실제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곧 교회는 전인적 기독교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기독교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Oak(1996)은 성경공부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탁월하지만 영적 변화를 촉진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Rice(1991)은 기도와 행동, 개인과 공동체, 몸과 영혼, 이성과 경험 사이의 균형과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점에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는 여름성경학교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⁸ Lee Eun Seung, “Understanding a Holistic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논총』 41 (2015), 9.

⁹ Ibid., 9.

제 III 장

EPIC 이론의 이해 및 EPIC 기독교교육론

영단어 ‘Epic’은 본래 ‘서사시’를 뜻하며, 영웅적인 이야기나 위대한 업적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매우 놀랍고 거대한 성취를 이룬 순간을 ‘Epic’이라고 묘사한다. 마치 획기적인 발견이나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That was epic!”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현대 교회에게 혁명적인 전환을 제시하며 기독교교육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회의 문화가 EPIC의 방향, 즉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¹⁰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기독교 리더십, 문화, 기술의 변화를 탐구하며 네 가지 핵심 요소를

¹⁰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2), 64.

제시하였다. Experience(경험), Participation(참여), Image(의미가 살아 숨쉬는 이미지), 그리고 Connection(관계). 이 네 가지 단어의 이니셜을 조합하여 이름 붙인 EPIC 이론은 현대 교회의 모든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스윗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를 통해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선포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과거 드류 신학교에서 자신이 “복음전도를 가르치는 스탠리 존스 석좌 교수직으로 추천”¹¹ 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도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하고, 현대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맞지 않는, 시대에 동떨어진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사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스토리 캐처” story-catchers,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¹²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영적으로 에픽(Epic)한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성 교회가 처한 영적 혼수 상태를 직시하고 “교회를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¹³

지금부터 필자는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과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¹¹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29.

¹² Ibid., 32.

¹³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4.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는 모든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를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A.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포스트모더니즘은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윗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보다 경험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정보를 원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고객이 한 번 다녀갔던 상점을 또 다시 찾는 이유는 그 경험이 색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험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공간을 다시 꾸미고, 신제품을 출시한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 경제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란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관계를 창조해 나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변화와 ‘인간소외’와 ‘상실감’, ‘인간성 말살’의 문제를 치유하며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¹⁴는 인식이 기독교교육 사상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¹⁴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45.

있는 다양한 “사이버 문화로 인해 점점 더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실생활로 끄집어내 줄 극단적인 현실 경험이 필요하기 마련”¹⁵ 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윗의 EPIC 이론에서 체험(Experience)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팽배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경험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거나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등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내용을 보충한다 해도 성도와의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¹⁶는 의견이 등장했다. 성도의 교제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또한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는 대체할 수 없다”¹⁷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침체의 분위기를 역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적인 기독교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을 여름캠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넘어, 삶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캠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체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¹⁵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37.

¹⁶ 지용근, 김용수 외 9명,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서울: 규장출판사, 2025), 52.

¹⁷ Ibid., 53.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팀 스포츠 활동을 하며 협력, 겸손, 인내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창작 활동과 무대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해 표현되는 신앙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는 자연 관찰, 하이킹, 캠프파이어, 체험 학습(Field Trip) 등의 야외 활동을 통해 창조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볼 수도 있다.

이처럼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캠프는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습자가 직접 신앙적 체험을 통해 배움을 내면화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B. 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는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스윗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이전에 소수에게만 제공되었던 특정한 권위가 사라지고, 모두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면서 사회나 정치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받는 타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직접 만들어 내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송길영은 현대 사회를 핵개인의 사회로 규명하고, “프로세스의 정규화를 통해

다채로운 개인의 욕망을 새밀하게 충족”¹⁸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상품개발과 대규모 세일즈는 근원적으로 경쟁력을 잃게”¹⁹될 것이라 제언한다. AI의 대중화와 함께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이 경제, 사회,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더욱 크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 작용한다.”²⁰

‘대리’에서 ‘참여’로 변화되는 현대 문화적 사조는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 한다. “1)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 2)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3)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4)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²¹ 우리는 더이상 한 방향의 흐름, 다시 말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수동적인 수용, 획일화된 기준과 절대적 권위에 의한 지배가 아닌 양방향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상호 참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에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설교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한방향적 형식을 취해왔다. 이는

¹⁸ 송길영,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서울: 교보문고, 2023), 287.

¹⁹ Ibid., 287.

²⁰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94.

²¹ Ibid., 100.

설교자의 권위를 유지시키며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적 설교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름캠프 안에서는 어떻게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설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는 설교, 학생들의 실제적인 사례나 간증 나눔, 비블리오 드라마, 토론과 나눔의 형식, 설교 주제와 연결되는 활동 등을 통해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설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 방식 또한 한방향적인 배움이 아닌, 예컨대 과학 실험, 악기 연주, 뮤지컬 제작 및 참여, 직업 체험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적극적인 동반자(co-learner)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참여하는 기독교교육 방식이 여름캠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신앙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C. 이미지(Images)를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스윗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독교교육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말씀뿐 아니라 이미지의 활용이 자리 잡고”²² 있기 때문이다. 곧 이미지가 영적인 삶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신앙적 이미지를 생생하게

²²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49.

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 “기계적인 종교에서 사람들을 건져 온전한 삶에 침잠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말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의 이미지와 이야기와 음악에 있다.”²³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유와 비유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풍부하게 상상하도록 했고,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사고하도록 만들었으며 곧 정적인 말씀을 생동감 있는, 자신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예수, 학교에 가다』(이수호)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예수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다고 평가한다. 뛰어난 교사이신 예수님은 한 반에 열 두 명의 제자를 두어 소그룹 교육을 이상적으로 실천하였다. 들판, 길, 호숫가 같은 자연환경은 물론 거리와 광장, 심지어 성전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을 천혜의 교실로 구비하였다.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이야기꾼(The great Storyteller)이라고 불렀다. ‘비유’라는 독특한 이야기 방식으로 귀납적 교육론의 논리 체계를 잡은 것도 예수 선생님이다. 가장 훌륭한 교사로서의 모습은 바로 몸으로 체현한 상징화 교육이다.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의미적절한 도구가 되었다.”²⁴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가? 스윗은 오늘날의 교회가 실패한 이유를 “이미지와 상상력, 은유와 이야기, 비유로 알려진

²³ Ibid., 150.

²⁴ 송병구, 『상징 (성경을 보는 눈을 뜨다)』(서울: kmc, 2021), 215.

은유 이야기 등 시인의 도구를 차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주제문이나 주요 원리, 핵심 개념을 찾는가? 아니면 삶을 변화시킬 이미지 혹은 대화나 이야기를 재구성할 지배적인 은유를 찾는가?” 교회가 현대적 교리와 율법만을 전달하고,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이미지와 은유, 상징으로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재고해야 한다.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독교교육을 여름캠프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핵심에 놓인 다양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구원, 사랑, 용서, 성령의 열매 등을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가? 또한 구약의 살인, 신약의 십자가 처형과 같은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대에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이미지들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할 때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특별히 여름캠프에서 매일 설교를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브젝트 설교(Object Sermon)을 추천한다. 오브젝트 설교는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성경의 말씀을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배우기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설교 방식은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설교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형식을 벗어나 이미지를 통한 기독교교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D.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교교육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혼자 즐기는 커피도 맛있지만, 스타벅스에서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 또한 매우 의미 있다. “특별히 스타벅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²⁵를 즐길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낸다. 커피의 온도와 향, 그리고 공간이 주는 편안하고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스윗은 이와 같은 스타벅스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기독교 영성이 관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관계성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제 종교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제도화된 종교 제국’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규율에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²⁶ 이전에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모임 장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곳, 지역사회를 축재 장소, 긴급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기지 등의 다역을 감당했다.”²⁷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었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현대 교회가 공동체와 관계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스윗은 하버드 대학의 한 정신과 의사의 주장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²⁵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7.

²⁶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66.

²⁷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8.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 3:12),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고 말씀하셨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원하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간의 관계, 창조물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관계는 어디에서나 발견될 것이다.”²⁸

“예수님은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셨지만, 관계의 대가이셨다.”²⁹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가치를 나누셨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교육하고자 한다면, 여름캠프가 관계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적 장소가 될 것이다.

여름캠프를 진행할 때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있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로 관계이다.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곧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교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믿음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름캠프 안에서 맺게 되는 운영 책임자,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²⁸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73.

²⁹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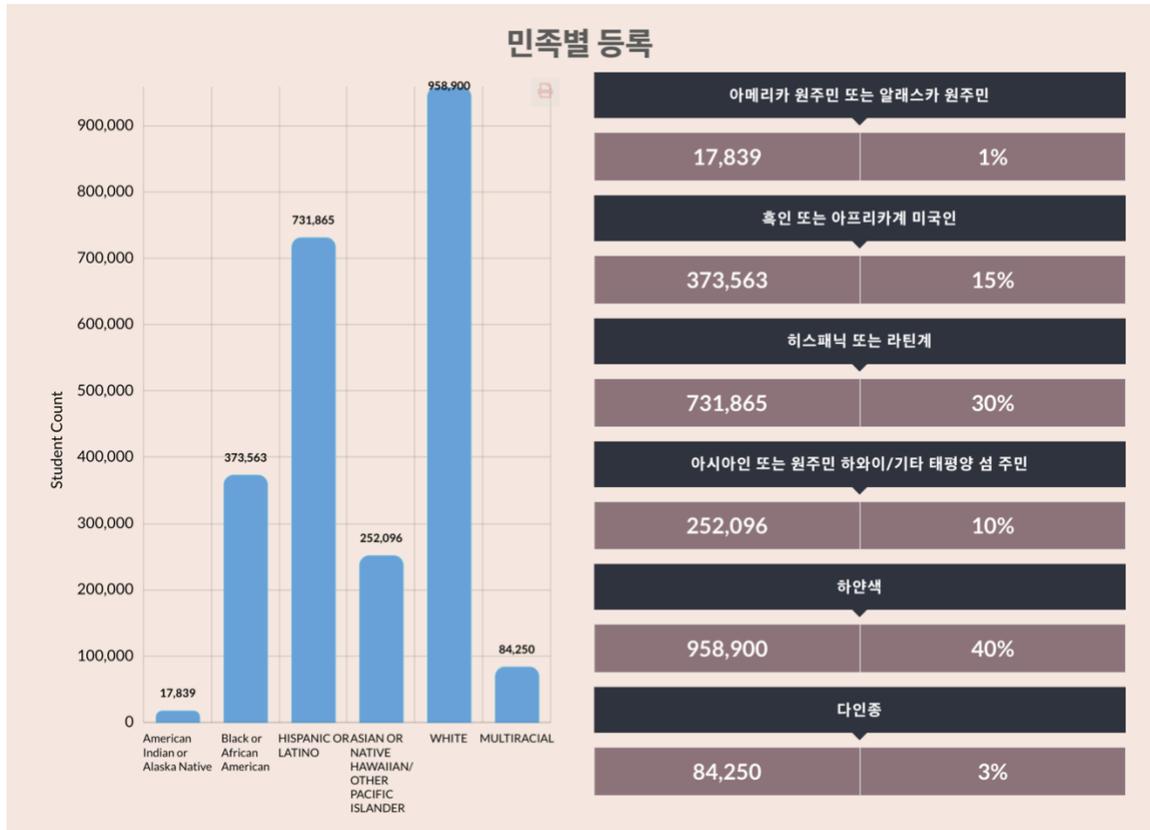
배우게 되는 영적인 가치들을 통해, 여름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IV 장

EPIC 이론을 적용한 전인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A. 커뮤니티 분석 및 이해

‘New York or No Where’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뉴욕 맨해튼(Manhattan, New York)은 전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도시로,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되는 곳이다. 흔히 맨해튼을 ‘도시’ 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 첫째, 수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인구들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위치한 맨해튼 동북부 지역(Upper East Side)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부유함을 상징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문화적 장벽이 공존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1> 2023-2024년도 뉴욕주 공립학교 민족별 등록 통계 자료³⁰

최근 맨해튼을 포함한 동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반영한 공립 교육이 증가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정들의 교육적 선택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뉴욕시 내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비공립학교 학생 수는 맨해튼 지역에서만 약 54,528명에 달하며, 이 중 기독교학교 학생은 약 19,000~22,000명으로 추정된다.³¹ 2023-2024년도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된

³⁰ 뉴욕주 교육부(NYSED), Public Data,

<https://data.nysed.gov/enrollment.php?year=2024&state=yes> [2025. 2. 25. 접속], 학생들의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생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음 보여준다. 이는 뉴욕이 다문화 사회임을 보여주며 기독교교육과 복음 전파에 있어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신앙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삶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³¹ 뉴욕주 교육부(NYSED) IRS, Nonpublic Enrollment by Districts of Residence and Attendance,

학생 수가 2,418,513명임을 고려할 때 기독교학교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뉴욕시에서 공립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생 수가 2.4배”³²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중남부의 바이블 벨트(Bible Belt) 지역과 달리 세속적 가치관이 뚜렷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교육을 원하는 가정들이 기독교학교 등록 또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팀 켈러(Tim Keller)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며(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을 믿도록 설득하는 복음 소통 사역, Gospel Messaging) 동시에, 복음으로 이웃이 되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신앙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채우는 복음 친화 사역, Gospel Neighboring). 두 가지 관심사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³³ 다시 말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뉴욕 맨해튼 지역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학생들이 전인적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름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여름캠프의 첫 시작은 본 교회의 담임목회자인 김진우 목사와 임지윤 사모가 맨해튼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한 교육적 현실과 이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설계 되었으며, 유사한 교육적 필요를 느끼는 지역

<https://www.p12.nysed.gov/irs/statistics/nonpublic/home.html> [2025. 2. 25. 최종 접속]

³² 한국일보, <뉴욕시 홈스쿨링 학생 2배 늘어> (2022. 08. 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26603>, [2025. 2. 25. 최종접속]

³³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치』 오종향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16), 675.

사회의 가정들, 기독교적 가치에 중심을 둔 캠프를 원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교회의 목회협조위원장이자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길주 박사 외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년 간 프로그램의 체계가 잡혀왔다.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는 예수 중심(Jesus-Centered)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도 맨해튼 지역의 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여름캠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의 가장 큰 목표는 세 가지로, 학생들이 1) 건강하게(Healthy Spirit) 2) 강하게(Strong Mind) 3) 자신감 있게(Self Confidence) 자라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본 교회 여름캠프는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전인격적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남을 믿고 교육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맨해튼 동북부 지역의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비를 책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전인격적인 신앙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살피고 지역 사회를 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본 여름캠프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1) 영적 성장

5주 동안 진행되는 여름캠프 동안 학생들은 매일 아침, 찬양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도모한다.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캠프가 일반적인 여름 프로그램과 달리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캠프라는 것 또한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찬양은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며 설교는 대부분 오브젝트 레슨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민감성 및 감수성 교육(Sensitive Training)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서로의 인종, 성별, 장애, 경제적 배경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과 소통, 그리고 배려의 언어들을 익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방식은 사례 나눔, 역할극,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이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본 교회에서 진행했던 오브젝트 설교와 민감성 및 감수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지적 성장

앞서 여름캠프가 작은 학교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본 여름캠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루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규칙적인 학습 패턴을 유지하고, 학교 생활에서 익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캠프에서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 공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한다. S.T.E.M., 창의적 글쓰기, 체육, 미술, 수학, 코딩, 로봇 공학, 합창, 뮤지컬, 요리,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용적인 생활 기술을 익히며 다채로운 배움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3) 문화적 연결 및 지역사회 기여

본 여름캠프는 미국의 한인 교회가 주최하는 캠프이지만 백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인구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맨해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본 캠프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경험을 나누면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팀워크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성과 수용의 문화를 확장시키기를 기대한다.

4) 진로 탐색

본 여름캠프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미국의 학생들 또한 학년이 올라갈 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함께 지원하고자 MET Dream Week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맨해튼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탐색하고 열정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여름캠프는 위와 같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학생의 육체적·지적·영적 성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전인적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학생과 부모들을 섬기고, 공동체성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에도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 프로그램 준비 및 행정 절차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는 5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금요일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진행자들이 교회의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은 주일 예배와 그 다음 주일의 주중사역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두 번째 이유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국내/해외 여행 등 가족 일정으로 도시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 결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개체 교회의 상황과 지역사회적 필요에 맞추어, 여름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여름캠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책임자 및 교사의 역량이다.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지휘하는 책임자는 연초부터 프로그램 일정, 홍보 방안, 교회와의 협조 및 장소 확보, 안전 및 위기 관리, 인력 선발, 예산 및 자원 관리,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등 총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필요와 운영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Program Director), 현장 총괄 책임자(Field Director)로 역할을 나누어 기획과 실제 현장 관리 및 조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와 현장 총괄 책임자는 여름캠프 진행에 앞서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캠프의 일정, 교사 모집 및 학생 등록 계획, 안전/공간 및 재정 관리를 보고하고 기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실행위원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 디자이너와의 협의를 통해 홍보용 자료를 제작한다. 이때 야외 부착용/온라인용 포스터, 온라인 설문 조사(Google Forms) 배너, 단체 티셔츠용 로고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개발 및 제작하여 전단지, 초대장, 이메일,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름캠프 등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그림 2>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2024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포스터



<그림 3>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2024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포스터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및 현장 총괄 책임자 외에 교사 충원에 대하여는 먼저 각 반마다 일상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교사(Teaching Assistant)가 배치된다. 이들은 단순한 수업 보조를 넘어, 전반적인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학습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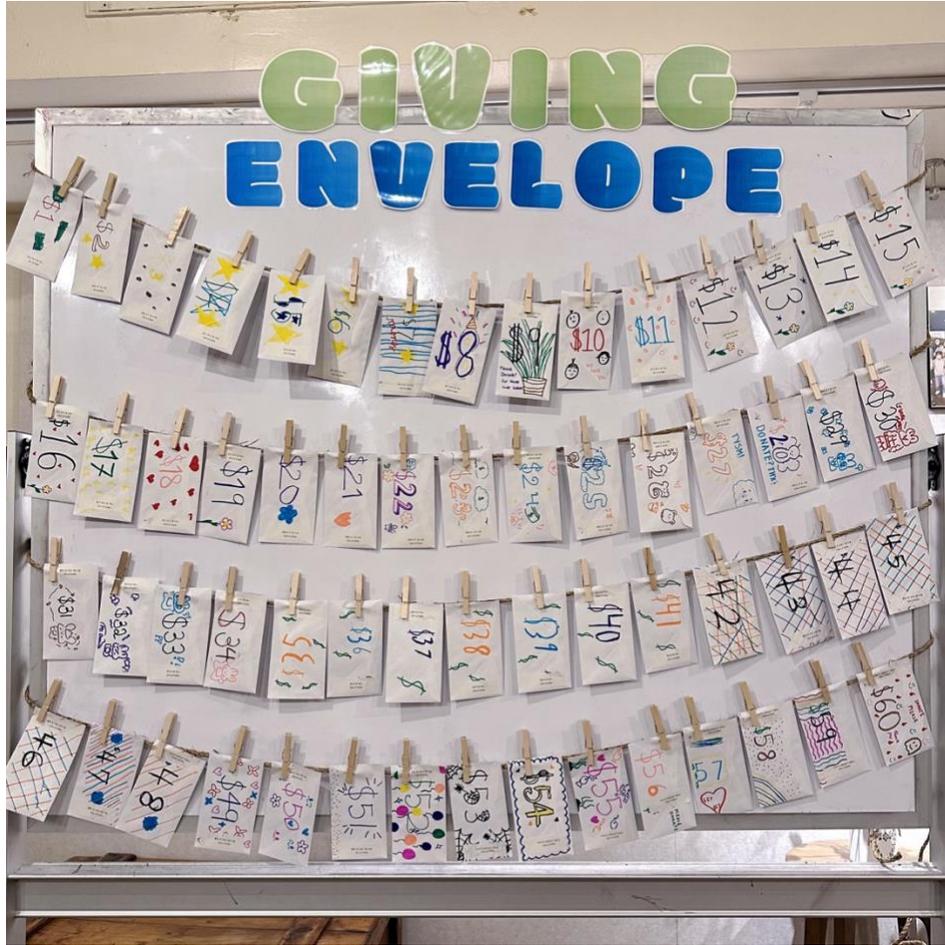
두 번째로, 시간표에 따라 각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를 채용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과목은 미술(Arts and Crafts), 과학(Science), 체육(Physical Education), 창의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요리와 제빵(Cooking and Baking), 수학(Math Logics), 뮤지컬(Musical Theatre), 타악기(Percussion), 로봇 공학(Robotics), 독서 및 토론(Reading), 한국 문화 이해(Korean Cultur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일정과 시간표는 그림 10과 11을 참고하라.

전문 교사라 함은 위의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공자 또는 다경험자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이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는 교수, 다큐멘터리 감독, 진료 협력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패션 디자이너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초청하여 각 직군의 역할과 실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였다. 교사를 선발하고 배치할 때에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며 모든 교사 및 직원은 이력서를 제출한 후에 면접과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를 포함한 철저한 선발과정을 거친다.

모든 교사 및 직원은 최소 두 번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캠프가 원하는 목표와 인재상,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먼저 나눈다. 이후 교사 및 직원 소개, 안전 교육, 전체 일정 등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안전

교육에는 응급 사건 발생 시 대처 요령, 수업 또는 야외 현장 학습 현장에서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고하는 상황 보고서(Incident Report)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사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다루며 이때 캠프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성실성, 전문성, 교수법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 방식,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두 번째 교육에서는 여름캠프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서 준비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살피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진다. 예를 들어 교실 지정, 자리 배치 구성,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 준비 등 실질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여름캠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교회의 여름캠프는 캠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레이징 행사(Fundraising Event)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주일예배 광고와 안내 포스터를 통해 기금 마련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들이 펀드레이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기부 방법으로는 지정 현금 후원, 여름캠프 티셔츠 구입, 학생 및 교사 간식 후원이 있었으며 펀드레이징 목표 금액에 달성할 경우 전교인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과일주스 또는 과일컵을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그림 4> 펀드레이징 행사 기부 봉투(Fundraising Event Giving Envelope)

기부 방법 중 하나였던 기부 봉투(Fundraising Envelope) 방식은 교인들이 쉽고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먼저 1부터 60까지의 숫자가 적힌 기부 봉투를 준비하여 줄에 매달아 놓는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금액이 적힌 봉투를 선택하여 해당 금액을 넣어 헌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봉투 안에는 교육부와 여름캠프를 위한 기도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교회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펀드레이징 행사와 관련된

안내 포스터 및 현장 사진에 대해서는 그림 12와 그림 13을 참고하라.

여름캠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외부 기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 교회나 교단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여름캠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캠프의 일부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본 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 사회 기금(City Society Funding)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서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단으로부터 재정 지원 기금을 받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D.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오후 시간대에 추가적인 대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고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오후 활동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집중 교육 과정(Intensive Course)으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들의 스포츠, 예술,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오후 활동을 고려한 것이며 오전 시간 동안 핵심 학습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오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하교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임감 및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고, 부모들의 연장 돌봄의 필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다.

교육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으로 나누어 준비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는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열어 보다 폭넓은 학습 경험을 쌓고 개인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전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는 ‘Met Dream Week’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을 탐구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부합하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연령대별 발달 단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교육 자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부록에 있는 그림 10와 그림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름캠프의 시간표는 한 주 동안 모든 수업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같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일정에는 두 차례의 현장 학습(Field Trip), 한 차례의 학부모 초청 발표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날에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현장 학습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1) 여름캠프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인지, 2) 연령대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인지, 3)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4) 식사나 휴식 시간을 가지기에 적절한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5) 버스 대절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 다수의 학생 및 교사가 단체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5) 관계자가 사전 답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6) 캠프 운영 재정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현장 학습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그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 초청 발표회는 여름캠프의 마지막 날에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인적인 교육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다. 발표회는 크게 전시형 작품 전시와 무대 발표 공연의 형태로 구성된다.

먼저 전시형 작품 전시 방법은 이러하다. 학생들이 캠프 기간 동안 그림, 공예와 같은 미술 작품과 창의적 글쓰기, 과학 등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학부모들이 다과와 함께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무대 발표 공연이 끝난 후 학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고, 작품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무대에서 진행되는 발표는 가장 먼저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회자의 축사,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의 감사 인사를 나누며 캠프의 교육적 의미와 성과를 학부모 및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이후 학생 발표는 뮤지컬, 타악기, 연극 및 합창 공연,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순서는 해당 과목을 지도하였던 교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발표 전 교사가 직접 수업의 목표와 학습 과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캠프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전인적으로 성장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대 발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V. 결론 분석

A.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서의 평가

여름캠프는 여름성경학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며 영적인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다양한 과목의 수업,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며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 및 보조 교사의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여름캠프를 바라보게 해주고, 리더십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본 교회에서는 2년 이상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 학생들에게 뉴욕 하원의원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 기독교교육 가치관을 함양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교육적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개별적인 과목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과목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논리적 사고 중심 과목은 일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이는 학생의 선호 차이일 수도 있고, 교사 또는 수업 방식의 차이, 수업 난이도 및 적절성 문제, 또는 수업 시간과 횟수 분배 문제의 영향일 수 있다. 프로그램 및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운영 방안 측면에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향으로 핵심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과 자유롭게 선택 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낮은 수업은 학생 피드백을 중심으로 교사 및 수업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참여 중심형 수업을 도입하여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여름캠프는 연중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캠프에서 근무했던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찬양과 예배 시간이다. 매일 드러지는 예배 시간에 한방향적인 설교에서 벗어나 참여적 설교 방식을 도입하고, 특별히 오브젝트 레슨(Object Lesson) 기법을 활용한 설교를 시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배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설교와 연관된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 레슨을 했다면 설교자가 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또래 그룹이 모여 카드 형식의 질문지를 통해 메시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우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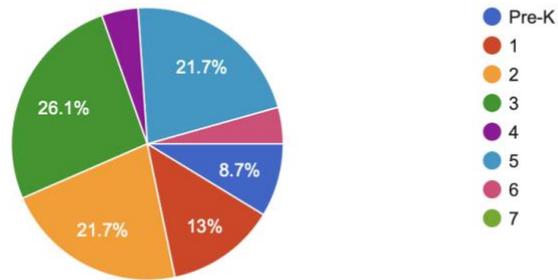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회 실행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하며 여름캠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요청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적극적으로 펀드레이징 행사를 시행하여 많은 후원금이 모일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선호도가 분명하게 갈리는 특정 수업을 동일 분야 내에서 새로운 강의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셋째,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를 신설하게 되면서 연령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MET Dream Week’이라는 개념은 유의미하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부합하는 강사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홍보 디자인, 건물 관리, 자원 봉사 등 캠프 운영에 기여한 성도들에게 적절한 감사를 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및 현장 총괄 운영자 외에 보조 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보조 교사의 급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 학생들의 평가

Your Grade

응답 23개

 차트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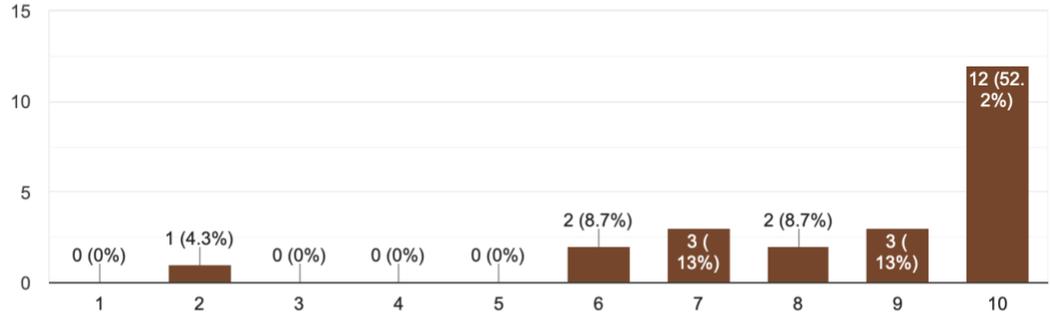
<그림 5> 학생 분포도

필자는 본 연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여름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Google Forms)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4년도 여름캠프에 참가한 32명의 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약 72%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생의 참여도와 피드백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이다.

1. Overall Experience:
 차트 복사

On a scale of 1 to 10, how much did you enjoy the camp?

응답 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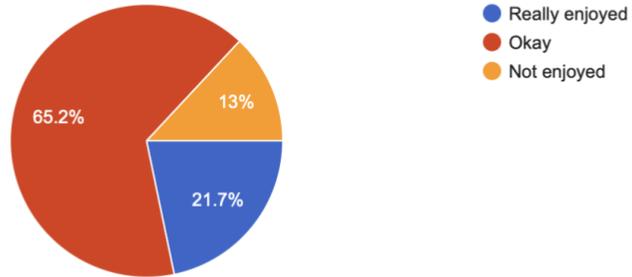
<그림 6> 캠프의 만족도

캠프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10점을 기준으로 8.2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미술(Arts and Crafts), 과학(Science), 체육(Physical Education), 요리와 제빵(Cooking and Baking), 뮤지컬(Musical Theatre) 등의 활동을 선호했으며 다음 학기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활동으로는 로봇 공학(Robotics), 특정 강사의 복귀 요청, 특정 수업의 횟수 확장 등이 언급되었다.

3. Praise and Worship Sessions

How did you feel about the daily praise and worship sessions every morning?

응답 23개



<그림 7> 찬양과 예배 시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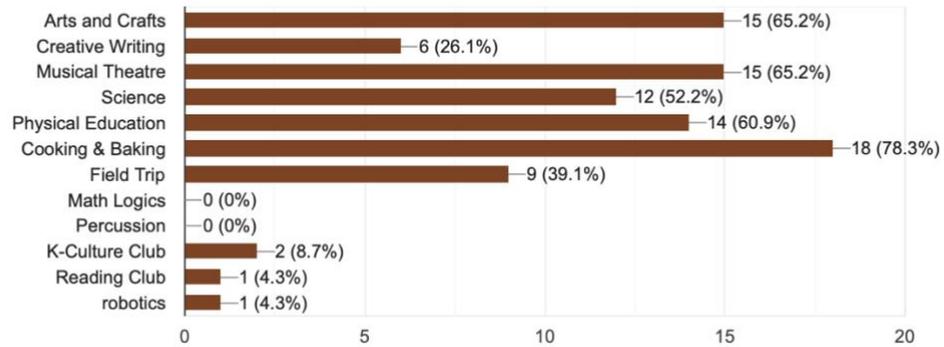
매일 아침에 들려졌던 예배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일부는 크게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예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약 절반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아니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성경 구절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게 되었다’, ‘예배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침에 나를 깨워주는 시간이었다’고 답변하였다.

2. Class & Activities

차트 복사

What was your favorite class or activity? (Check all that apply)

응답 23개



<그림 8> 교과별 학업 및 성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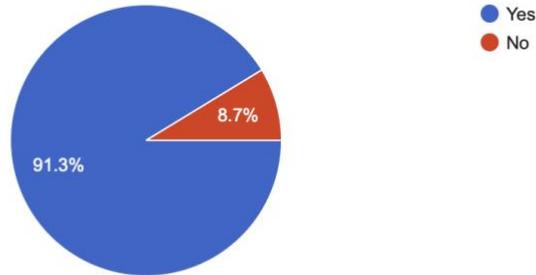
학습 및 성장 항목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캠프에서 로봇 공학(Robotics), 수학(Math Logics), 창의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과학(Science), 유엔(UN)의 다양한 회의 구조 등에 대해 배웠다고 응답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적인 성장보다는 캠프의 활동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배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도전 과제 항목에서 참가자들이 겪은 어려움으로는 ‘현장 학습 때 더운 날씨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다’, ‘지하철에서 외부인과의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 ‘수학(Math Logics)이 어려웠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특정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4. Safety and Supervision:

Did you feel safe at the summer camp?

응답 23개



<그림 9> 안전 및 감독 만족도

안전 및 감독 항목에서는 ‘당신은 여름캠프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에 91.3%의 학생들이 ‘네’ 라고 답변하여, 캠프에서의 안전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는 ‘더운 여름 날씨에는 야외 필드 트립을 줄였으면 좋겠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캠프 참가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50%는 내년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잘 모르겠다’, 일부는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다. 캠프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로봇 공학(Robotics), 뮤지컬(Musical) 등 선호하는 과목을 그대로 유지해주시기를 요청하였고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C. 결론 및 미래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를 사례를 통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필자는 현장 총괄 책임자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EPIC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기독교교육이 학생들의 신앙 형성과 전인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캠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인적인 기독교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현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만족도 차이, 예배와 찬양 시간의 몰입도 부족 및 영적인 성장 확인의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름캠프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신앙 형성과 삶의 변화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현대 사회의 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교회의 기독교교육 모델도 지속적으로 발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특정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추구하는 교회가 EPIC 이론을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본 연구가 미국 및 한국 교회의 교육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라며, 필자가 제안하는 여름캠프 기획 가이드는 부록 2에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여름캠프가 개체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윤길근, 김진규. 『전인교육의 담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21.

윤길근, 김진규. 『전인교육 사상가 평전』.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21.

지용근, 김용수 외 9명.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서울: 규장출판사, 2025.

송길영.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서울: 교보문고, 2023.

송병구. 『상징 (성경을 보는 눈을 뜨다)』. 서울: KMC, 2021.

김수지. 『왜 전인교육인가』. 의정부: 책다름, 2024.

장주동. 『전인적 양육, 기독교 전인 교육을 디자인하라!』. 서울: 파이디온선교회, 2021.

이동규. 『전인적 기독교 교육』. 서울: 밀알서원, 2015.

장신근. 『통전적 신앙과 생애주기별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9.

이현철 외 9명.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대안교육 및 학교교육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24.

유지윤 외 3명. 『AI 시대의 교육목회와 미디어』. 서울: 꿈미, 2023.

김도일 외 3명.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내일이 있다』. 서울: 동연, 2022.

조성국.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독교학교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19.

2. 번역 서적

Leonard Sweet/김영래 옮김.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2.

Leonard Sweet /이지혜 옮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Tim Keller/오종향 옮김.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서원, 2016.

Raja T. Nasr/강선보, 정윤경, 고미숙 옮김.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2016.

Karen-Marie Yust/이규민 옮김. 『기독교교육과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Parker J. Palmer/김성환 옮김.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문화, 2024.

Parker J. Palmer/이종태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14.

3.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김영래. “다중적 앎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43 (2001), 433.

김영래. “다중적 앎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43 (2001), 437.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49.

Lee Eun Seung. “Understanding a Holistic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논총』 41 (2015), 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23.

4.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top>

[2025. 3. 3. 최종접속].

뉴욕주 교육부(NYSED). “Public Data.”

<https://data.nysed.gov/enrollment.php?year=2024&state=yes> [2025. 2. 25. 접속].

뉴욕주 교육부(NYSED) IRS. “Nonpublic Enrollment by Districts of Residence and

Attendance.” <https://www.p12.nysed.gov/irs/statistics/nonpublic/home.html> [2025. 2.

25. 최종 접속].

한국일보. “뉴욕시 홈스쿨링 학생 2 배 늘어.” (2022. 08. 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26603> [2025. 2. 25. 최종접속].

부 록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July 8 AM: P.E. & Percussion PM: Musical Theatre & Math Logics	July 9 AM: Arts and Crafts & Creative Writing PM: Science & Math Logics *Extend: K-Culture Club (Ms. Ashley)	July 10 AM: Creative Writing & Percussion PM: Science & Math Logics *Extend: Reading Club (Ms. Jenny)	July 11 AM: Arts and Crafts & P.E. PM: Musical Theatre & Math Logics
July 15 AM: P.E. & Math Logics PM: Science & Percussion	July 16 AM: Arts and Crafts & P.E. PM: Musical & Creative Writing *Extend: K-Culture Club (Ms. Ashley)	July 17 AM: Robotics & Math Logics PM: Science & Percussion *Extend: Reading Club (Ms. Jenny)	July 18 AM: Arts and Crafts & P.E. PM: Musical Theatre & Creative Writing
July 22 AM: Creative Writing & Cooking PM: Science & Percussion	July 23 AM: Arts and Crafts & Math Logics PM: Musical Theatre & P.E. *Extend: K-Culture Club (Pastor Jane)	July 24 Field Trip 1 United Nations New York *Extend: Reading Club (Dr. Kil J Y)	July 25 AM: Arts and Crafts & PingPong Day PM: Musical Theatre & P.E
July 29 AM: Creative Writing & Cooking PM: Science & Percussion	July 30 AM Science Show PM: Musical Theatre & P.E. *Extend: K-Culture Club (Ms. Ashley)	July 31 AM: Creative Writing & Math Logics PM: Science & P.E. *Extend: Reading Club (Ms. Jenny)	August 1 Field Trip 2 Historic Downtown Manhattan
August 5 AM: Creative Writing & Cooking PM: Science & Percussion	August 6 AM: Arts and Crafts & Math Logics PM: Musical Theatre & Percussion *Extend: K-Culture Club (Ms. Ashley)	August 7 AM: Creative Writing & Musical Theatre PM: Science & Percussion *Extend: Reading Club (Ms. Jenny)	August 8 Celebration & Presentation

<그림 10>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프로그램 일정표

Daily Schedule

Start	End	Du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8:45	9:00	15min	Doors Open			
9:00	9:30	30min	Praise & Worship			
9:30	10:20	50min	1st Period			
10:20	10:35	15min	Break time & Snacks			
10:35	11:25	50min	2nd Period			
11:25	12:10	45min	Lunch			
12:10	13:00	50min	3rd Period			
13:00	13:50	50min	4th Period			
13:50	14:00	10min	PACK UP / READY FOR EXTENDED CLASS			
14:00	16:00	110min		K-Culture Club	Reading Club	

<그림 11>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시간표

안녕하세요,
멧처치 교육부
루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저희가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2주간 교육부를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Summer 2024와 친교실 내 어린이 공간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펀드레이징의 목표 |

- 01 Summer 2024 프로그램 진행
- 02 Youth Class 수업 환경 개선
- 03 친교실 어린이 공간 업그레이드

How to?

- 1 Giving Envelope 후원**
\$1-\$50 후원 봉투를 가져가서 후원금을 넣어 현금주세요. 봉투 안에는 교육부와 Summer 2024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 2 Summer 2024 T-Shirts 구입**
Summer 2024 교사 티셔츠 구입을 통해 여름 시역을 후원해주세요. 구입한 티셔츠를 입고 Field Trip 행사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아요.
- 3 Summer 2024 학생/교사 간식 후원**
\$50 또는 \$100 후원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맛있는 간식과 점심식사를 제공해주세요.
- 4 목표 금액 도달 시 커피, 과일주스 제공**
\$1800의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과일주스 또는 과일함을 전 교인에게 나눠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 함께 이뤄낸 일들을 소개합니다

Big thanks for your support!

- Painting the wall**
We painted the wall of the Root Ministry Room(BSMT) twice. This project refreshed the walls, giving the space a vibrant and welcoming atmosphere.
- Changing the light**
We upgraded the Root Ministry Room(BSMT) to energy-efficient LED lights, improving visibility and creating a more pleasant environment.
- Changing the furniture**
We replaced old furniture with new, ergonomic pieces donated by brotherhood community, enhancing comfort and functionality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 Setting up the small library and board games**
This initiative not only enriched our fellowship room but also provided valuable resources for our children to engage, communicate, and play, fostering a vibrant and interactive community atmosphere.
- Volunteering for our summer program**
Contributing as volunteers allowed us to enrich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our children, nurturing learning beyond the campgrounds and building stronger bonds within our community.

Also we installed HVAC systems, maintained sound systems, installed soundproof panels in fellowship rooms, and upgraded projectors. The help from our church members is priceless.

싸머 2024 한정 상품

\$20

Summer Supporters T-Shirts

@ MET CHURCH - SUMMET 2024 @ MET CHURCH - SUMMET 2024 @

METCHURCH

<그림 12> 펀드레이징 행사 안내 포스터



<그림 13> 펀드레이징 행사 현장 사진

Summer 2024 @MET Church

메트로폴리탄 연합감리교회 2024 여름 캠프 예배 기획

매주 월요일

현장 총괄 책임자로 함께 사역한 이길주 교수가 민감성 및 감수성 교육(Sensitive Training)을 진행한다. 본 교육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는 타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존중, 개인 정보와 사생활 존중, 친절한 언어 사용, 캠프 내에서의 안전한 행동하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캠프 호라동 전반에서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상호 존중과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에는 'Talking Thursday'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Outus 50 Morning Meeting Chips Questions Cards for Students'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카드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마인드 노크, 솔라리움 등 다양한 질문카드를 활용해도 좋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학생들이 매주 새로운 소그룹을 구성하여 대화함으로써 캠프 내 공동체성이 확장되었다. 또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매주 화, 목요일 - 오브젝트 레슨(Object Lesson)

1.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경 (골로새서 3:16)

✓ 준비물: 투명한 컵, 뜨거운 물, 티백(홍차 또는 녹차처럼 물 색이 변할 수 있는 차 종류)

💡 방법

- 1) 컵에 뜨거운 물을 따른다.
- 2) 티백을 컵 안에 넣고 기다린다.
- 3) 물이 점점 차의 색과 향을 띠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설명

- 1) 컵에 들어있는 물의 색깔은 무슨 색인가요? 어떤 향기가 나나요?

- 2) 티백을 담그고 기다렸더니 물의 색과 향이 변화되었어요.
- 3)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로운 사람으로 말이지요.
- 4)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더욱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영상: [▶ OBJECT LESSON About The Bible](#)

<https://youtu.be/sOf3UkZmGul>

2.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로마서 8:38-39)

 준비물: 휴지심, 종이 접시, 물이 담긴 컵, 계란

 방법

- 1) 컵 안에 물을 채운다.
- 2) 컵 위에 종이 접시를 올리고, 그 위에 휴지심을 세운 뒤, 맨 위에 계란을 올린다.
- 3) 아주 빠르게 종이 접시를 당겨서 빼버린다.
- 4) 계란은 컵 안의 물 속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깨지지 않는다.

 설명

- 1) 계란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예요.
- 2) 종이 접시와 휴지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볼게요.
- 3) 컵 안에 담긴 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 4) 이제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 5) 계란이 종이접시와 휴지심 위에 매우 위태롭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종이 접시를 빼면 계란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종이 접시를 당겨 빼버리고, 계란이 안전한지 함께 확인한다.)
- 6)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참고영상: [▶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God's Love | Made for Children | St...](#)

<https://youtu.be/ljwreg5mH0w>

3. 나의 1순위는 하나님(마태복음 6:33)

✔ 준비물: 바나나 2개

💡 방법

- 1) 바나나의 껍질을 벗긴다.
- 2) 바나나를 조금씩 떼어내며 설명한다.

🙏 설명

- 1) 바나나를 특별한 날에 받은 용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 2) 성경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 3) (첫 번째로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조금씩 떼어내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요.
- 4) (남은 바나나를 조금씩 떼어내며) 그리고 남은 것으로 친구를 위한 생일 선물을 사고,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인형뽑기를 했어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두었으니 다행이에요.
- 5) (두 번째로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조금씩 떼어내며)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먼저 친구를 위한 생일 선물을 사고,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인형뽑기를 했어요.
- 6) 그리고 주일이 오니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 7)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 참고영상: [▶ Putting God First - Sunday school Object Lesson](https://youtu.be/Qj17GyEKsUs)

(<https://youtu.be/Qj17GyEKsUs>)

4.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디모데후서 3:16)

✔ 준비물: 물, 플라스틱 지퍼백, 연필

💡 방법

- 1) 플라스틱 지퍼백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잠근다.
- 2) 뾰족하게 깎은 연필 여러 자루를 지퍼백에 꽂는다.

🙏 설명

- 1) 물을 가득 채운 지퍼백에 연필을 꽂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2) (연필을 하나씩 잡아 조심스럽게 지퍼백을 관통하도록 꽂으며)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 3)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과 걱정을 만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 4) 그러나 지퍼백이 터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세요.

🎬 참고영상: [▶ Object lesson on trusting God \(that your kids will BEG to do again!\)](https://youtu.be/RmXpgqxr4VM)

<https://youtu.be/RmXpgqxr4VM>

5. 기도의 아름다움(빌립보서 4:6)

✅ 준비물: 지퍼

💡 방법

- 1) 지퍼를 손에 높이 들고 보여준다.
- 2) “이 돈을 가질 수 있는데, 내 몸을 만지지 않고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 3) 학생들에게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 4) 머뭇거리는 학생에게 “May I have it?(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떠냐고 제안한다.
- 5) 학생이 요청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라며 돈을 건네준다.

🙏 설명

- 1) 우리는 때로 기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 2)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3) 빌립보서 말씀 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주십니다.
- 4)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이며, 우리가 주저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 참고영상: [▶ OBJECT LESSON About Prayer](https://youtu.be/X9Z1MV0iewY) <https://youtu.be/X9Z1MV0iewY>

부록 2. 교회 여름캠프 기획을 위한 가이드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비전

- 1) 캠프의 핵심 목표와 주제는 무엇인가?
- 2) EPIC 이론(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인가?
- 3) 교회의 장기적인 교육 비전 및 지역 선교 사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 참가자에 대하여

- 1) 예상 참가 연령대 및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 2) 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예: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수업 진행)
- 3) 참가자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 연령 제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가능 여부, 비기독교 가정의 참여, 장애나 알리지 않은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준비 여부)

3. 프로그램의 구조 및 일정

- 1) 캠프는 몇 주 동안 운영되며 하루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2) 예배와 수업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3) 예배, 수업, 야외 현장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가? (예: 오전에는 예배와 관련된 활동과 논리 및 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 중심,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야외 현장 학습 배치)

4) 어떻게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인가?(전단지, SNS 홍보, 커뮤니티 광고 등)

4. 활동 및 커리큘럼

1) 캠프에서 제공할 주요 과목 및 활동은 무엇인가?

2)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가? (예: Crazy Hair Day, Book Character Day, Favorite Animal Day 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테마에 맞게 꾸미고 오는 날, 체육대회, 방탈출 게임, 선교 프로젝트 등)

3) 현장 학습(Field Trip) 계획이 있는가?

4) 수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가?

5. 교사 및 자원봉사자 관리

1) 캠프 운영에 필요한 교사 및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인가? (예: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현장 총괄 책임자, 학생 6-8 명당 교사 2 명 배정)

2) 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필수 자격 요건과 경험 수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 재학/졸업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 보유자, 기독교 신앙 여부,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 필요 여부)

3) 교사들에게 제공할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은 몇 회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4) 자원봉사자 참여 방식과 봉사 시간 제공 여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6. 학부모 소통

1) 학부모들에게 캠프 진행 상황 안내 및 공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예: 한 주에 한 번씩 사진/동영상과 함께 이메일 업데이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2) 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는가?

7. 시설 및 자원 활용

1) 캠프에서 사용할 교회 내 공간은 어디인가?

2)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3) 학생들의 등·하원 절차와 동선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예: 주차 공간 확보, 지정된 장소에서 보호자 확인 후 인계 등)

8. 안전 및 건강, 위험 관리

1) 캠프 운영 중 안전 규정 및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예: 화재 대피 계획, 긴급 연락망 구축, 시설 내 위험 요소 점검, 가까운 의료 시설 확인)

2) 의료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

- 3) 학생들의 건강 정보(알레르기, 특수 질환)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
- 4) 예상 가능한 사고와 시설 내 위험 요소를 점검하였는가?
- 5) 학생 및 교사의 법적 책임 면제 동의서(Liability Form)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등록 시 필수 제출, 응급 연락처 포함)
- 6) 캠프 운영을 위한 책임 보험 및 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9. 예산 및 재정 관리

- 1) 캠프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 (예: 장소 대여 비용 및 공과금, 시설 유비 비용, 교사 급여, 식사 제공 여부, 현장 학습 비용 등 포함 여부)
- 2) 운영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예: 참가비, 펀드레이징을 통한 후원, 교단 및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후원, 다자녀 할인 및 장학금 신청 여부)
- 3) 펀드레이징 행사 계획이 있는가?

10. 평가 및 피드백

- 1) 학생 및 학부모의 후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예: 온라인 설문 조사, 후기 인터뷰, 사역자 평가 보고서 작성 등)
- 2) 캠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무엇인가?(예: 출석률, 재등록 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 신앙 성장 변화 등)

3)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만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Naeun Cho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nd October 13, 1992

Parent's Names: Namsik Cho and Boksun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Baehwa Girls' High School 26, Pildong-ro 1-gil, Jung-gu, Seoul, South Korea		Feb 4, 2011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chelor	Feb 6, 2015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 Div	Aug 24, 202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Naeun Cho

Oct 31, 2024